

# 제주 방언의 움라우트 연구\*

- 형태소 내부를 중심으로 -

고 동 호\*\*

## 〈차 례〉

- |             |               |
|-------------|---------------|
| 1. 서론       | 3.2.1 동화주     |
| 2. 움라우트의 제약 | 3.2.2 형태소의 종류 |
| 3. 움라우트의 양상 | 3.2.3 피동화주    |
| 3.1 진행 과정   | 3.2.4 개재자음    |
| 3.2 실현 정도   | 4. 결론         |

## 1. 서 론

1.1 이 글의 목적은 제주 방언이 경험한 형태소 내부에서의 움라우트의 양상과 과정을 고찰하는 데에 있다. i-역행동화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sup>1)</sup> 국어 음운론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져 왔던 주제의 하나이지만, 제주 방언의 움라우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金光雄(1982)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鄭承喆(1988, 1994)에서도 제주 방언의 움라우트가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제주 방언이 일반적으로 움라우트를 경험했다고 보고되어 있다.

움라우트에 대한 연구사는 이미崔明玉(1988, 1989),崔鎔承(1990)에서 정리된 바 있지만, 그 이후에도, 박창원(1991),韓榮均(1991),소강춘(1991) 등이 현상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먼저, 박창원(1991)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시적인 과정인 움라우트를 공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고,韓榮均(1991)에서는 움라우트에 대한 음운사적 해석을 통하여 움라우트와 이중모음의 단순모음화 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논의된 한편, 모음체계의 재정립에서의 이 두 과정의 역할이 논의된 바 있다.

\* 이 논문은 1991년도 대우 학술재단 Post-Graduate 장학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1995년 8월 5일에 열린 한국언어학회 여름 학술발표대회(대전:충남대학교)에서 발표한 요지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총 30여 시간에 걸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제보자와 발표 당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강사

1) 최전승(1978)에서는 i 또는 j 앞에서 j가 첨가되는 현상을 '일차적 umlaut'로 해석하고, 전설모음화하는 'umlaut'와 구별하기 위해 전자를 'i-모음역행동화'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소강춘(1991)에서는 19세기말~20세기 초와 현대 충남 서천 지역에서의 움라우트의 생산성의 차이가 논의되었다.

1.2 움라우트는 일반적으로 후행하는  $i$ 나  $j$ 의 영향으로 선행하는 후설모음이 전설모음화한 현상을 가리키며, 이 경우  $i$ ,  $j$ 를 동화주라고 하고 후설모음을 피동화주라고 불러 왔다. 그런데, ‘움라우트’라는 용어는 원래 게르만어학에서 비롯된 것이고, 게르만어와 국어의 움라우트가 초분절음의 관여 여부에 의해서 차이를 보이며(金完鎭 1963, 주 39), 게르만어에서는 이 현상이 일어난 이후에 피동화주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과, 전설화뿐만 아니라 상승화나 하강화도 일어났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韓樂均(1991)에서는 움라우트와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를 “ $i$  모음 역행동화”라는 테두리로 묶고, 음절 경계의 개재 여부 및 표기 변화의 수반 여부에 따라 이 두 현상을 구분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앞에서 말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움라우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것은 움라우트의 결과가 음운 분열(phonological split)의 단계를 거쳐 새로운 음소가 모음체계에 도입된다(Hock 1986:66)는 일반적인 경향과 국어의 움라우트가 부분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1.3 이 글을 위한 방언 조사는 1995년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되었는데, 조사지로는 일주도로에서 5.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2리를 선택하였다. 이처럼 중산간 지역을 조사지로 택한 이유는 이러한 지역의 방언이 해변 지역보다 더 제주 방언의 원형에 가깝다는 제주도 방언 화자들의 느낌을 반영하기 위해서였다.<sup>2)</sup> 제보자는 1940년대와 1950년대에 걸쳐 10여 년간 일본 생활을 경험한 고형선(1918년생, 남)씨였다. 외지 생활의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조건에 어긋나지만, 서로 다른 언어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난 제주 방언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다른 제보자들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어의 움라우트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개재자음에 따른 움라우트의 제약 여부, 형태소의 경계 유무에 따른 움라우트의 실현 여부, 피동화주에 따른 움라우트의 실현 정도 등이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런데, 움라우트는 기본적으로 통시적 현상(崔明玉 1988)이라는 점과 파생어 형성에 관여하는 형태론적 규칙들은 통시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李秉根 1976)는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그 범위를 형태소 내부로 한정하고자 한다.

2) 제보자에 따르면, 이 마을의 규모는 高씨 가구가 약 45%, 申씨 가구가 약 20%, 기타 등으로 이루어진 130여호이며, 육지인들은 대단히 최근에 이주해 왔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제주 방언 화자들의 일반적인 느낌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보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라산을 기준으로 제주도를 동서 남북으로 나누었을 때, 남북의 차이보다는 동서의 차이가 더 크다는 사실은 성낙수(1991)에서 지적된 바 있다.

## 2. 움라우트의 제약

방언사를 반영하는 문헌이 존재하지 않는 방언을 대상으로 하여 통시적 관점에서 움라우트를 연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여건을 안고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대체로 움라우트를 반영하지 않은 정서법과 비교하여 피동화주가 서로 다르면 해당 방언형이 움라우트를 경험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sup>3)</sup> 둘째로, 崔明玉(1988)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둔 i, j의 후행 여부에 따라 후설 모음과 그 후설 모음의 변이형이 교체를 보이는 경우도 움라우트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셋째로, 확산성을 특징으로 하는 방언 분화의 속성에 말미암아 개실파를 경험한 형태와 경험하지 않은 형태가 공존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방언권 내에서 피동화주가 상이한 방언형들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 방언은 움라우트를 경험했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해 보아도 제주 방언에서는 움라우트가 실현되지 않는 개재자음들이 있다. 다음의 (1)은 음소적 층위에서 개재 자음이 각각 tʰ, tʰ, l, n, s, t, tʰ인 예를 피동화주별로 하나씩 제시한 것이다.<sup>5)</sup>

- (1) a. tʰɔdʒi- ‘차지다’, mik’oradʒi ‘미꾸라지’, todʒi- ‘도지다’, pʰudʒi- ‘푸지다’  
 b. motʰi- ‘마치다’, kuotʰi- ‘그치다’, patʰi- ‘부치다’, tatʰi- ‘다치다’, totʰi ‘도끼’, mutʰi- ‘무치다’  
 c. kɔri- ‘가리다’, menuuri ‘며느리’, arjap- ‘어렵다’, tari- ‘다리다’, tonggorjag ‘도시락’, turi- ‘제정신이 아니다, 어리다’  
 d. tɔni- ‘다니다’, amani ‘어머니’, pʰani ‘폐기’, monjapdagari ‘모양다리’, tʰunjan ‘추너’

3)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움라우트에 대한 선행 연구는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방언에서도 노년층이나 비교양인 계층에서는 움라우트를 경험한 형으로 발음되지만 청소년층이나 교양인 계층에서는 움라우트 비실현형으로 발음되고 있다(이은정 1988:191)고 한다.

4) 박창원(1991)에서는 ‘파생어와 폭용이라는 형태론적 범주에서의 움라우트는 공시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국어의 움라우트는 어떤 통시적 과정을 거쳐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론적인 범주에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은, 통시태의 결과를 공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지 움라우트 자체가 통시적이라는 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된다.

5) 여기에서 제시되는 예들은 움라우트 환경이 형태소 내부에 존재하는 것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제주 방언에서 움라우트를 제약하는 개재 자음의 역할은 형태소 경계의 유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둔 움라우트의 실현 양상은 다른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 e. mɔsi- ‘무서워하다’, kuusiri- ‘그슬리다’, ʌbasi ‘아버시’, kaʌbasi ‘거지’, posi ‘보시’, susi- ‘쑤시다’  
 f. mɔdi ‘마디’  
 g. mɔtʰi- ‘마디다’

개재 자음이 [+coronal]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음라우트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음라우트 연구 초기부터 인정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sup>6)</sup> (1)은 제주 방언에서는 [+coronal]의 자질을 갖는 자음 음소들이 음라우트를 제약한다는 조건이 여전히 성립됨을 말해 준다.<sup>7)</sup>

음라우트를 막는 개재 자음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金完鏞(1963, 1971) 및 李秉根(1971)을 거쳐, 崔明玉(1989)에서는 개재 자음이 [+high, -back]의 자질을 갖는 음으로 실현될 때 음라우트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규정되었다. 즉, [ahigh, aback]의 자질을 갖는 음으로 조음되어야만 음라우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1)c의 자료를 검토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제주 방언의 음라우트가 다른 방언들보다 뒤늦게 일어났거나 초기의 상태를 보인다는 것을 말해 준다. 왜냐하면, 다른 방언에서는 모음 사이에서 [-high, -back]의 자질을 갖는 [[r]로 실현되는 음소 l이 개재되는 경우에 동사에서 음라우트가 일어날 수 있어서 음라우트 규칙이 확대되고 있는 데 비해서, 동일한 환경의 (1)c는 음라우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金完鏞(1963)에서 지적된 문헌에서의 초기 음라우트형 가운데 [+coronal] 자질을 가지는 ‘대리, 기더리’에 대응되는 제주 방언형은 tol-, kidɔri-으로 전자가 제2음절의 모음이 탈락되기는 하였지만, 음라우트를 경험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1)d의 예에서 n은 경구개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high, -back]의 자질을 갖는 치조음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이’(齒, 齒)에 대한 제주 방언형이 [ni]라는 사실은 통시적으로 제주 방언이 n 구개음화를 경험하지 않았음을 보인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두 위치에서 i, j 앞의 n이 탈락되지 않은 것은 이 두 예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불, 익다, 여름, 열’ 등 중세 문헌형의 어두가 ‘n+i’ 혹은 ‘n+j’로 시작되는 음절로 표기된 어휘들의 제주 방언형은 ‘ibul, ik-, jaraum’ 등 모두 n이 탈락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 방언에서 음라우트가 일어날 때까지는 n이 i, j 앞에서 경구개음으로 실현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sup>8)</sup>

6) 음라우트에 대한 개재 자음의 제약이 이처럼 강력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金英培(1985), 崔鎔承(1990) 등 참고.

7) 엄격히 말하자면, 음라우트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하는 개재 자음들이 음라우트가 일어났던 시기에도 현대어와 같이 [+coronal]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먼저 규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coronal]로 묶을 수 없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는 현대 제주 방언과 음라우트의 발생 시기의 제주 방언에서 이 개재 자음들의 변별적 자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8) 다른 방언의 경구개 파찰음에 치조 파찰음이 대응되는 평안 방언에서도 ‘스, 스, ㅅ’ 등이 경구개음을 변이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 崔明玉(1989, 주 23)에 언급되어 있다.

한편, 음라우트가 문헌어에서 t 구개음화와 ‘되>디, 퇴>티’ 변화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은 崔明玉(1989)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1)f, g는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제주 방언에서도 문헌어와 동일한 순서로 이 세 통시적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즉, (1)f의 문헌형이 ‘뜨티’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제주 방언에서 음라우트가 일어났을 때, 이 유형에 속하는 어휘들이 하향이중모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그 후에 하향이중모음들이 i로 바뀌었다고 보는 방법이다. 둘째는, 제주 방언에서는 문헌어에서와는 달리 하향이중모음들이 i로 바뀐 후에 음라우트가 일어났지만, t, tʰ가 [+coronal]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f, g는 음라우트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sup>9)</sup>

(1)b의 유형에 속하는 tʰutʰi- 및 다음의 (2)d, e의 sɔmdʒi-, taptʰi- 등은 중부 방언형의 ‘추키다’, 문헌형의 ‘슌기’, ‘닭기’와 비교할 때, 제2음절이 k 구개음화를 경험한 것이고, 이것은 음라우트보다 먼저 일어난 것으로 믿어진다. 왜냐하면, 음라우트가 일어나고 나서 k 구개음화가 일어났다면 이 제주 방언형들의 제1음절은 후설모음으로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金光雄(1985)에 따르면, 제주 방언에서 t 구개음화는 모든 위치에서 일어났지만 k 구개음화는 주로 어두 음절에서만 일어났으므로, 역사적으로 t 구개음화가 k 구개음화보다 먼저 일어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제기한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는 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주 방언에서는 t 구개음화, k 구개음화, 음라우트, ‘퇴>티, 되>디’의 변화의 순으로 통시적인 과정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t 구개음화를 경험한 pʰɔdʒi- ‘퍼지다(<퍼디다)’, kotʰi ‘고치(<고티)’, kodʒidut- ‘곧이든-<고디든-)’, kotʰi ‘같이(<마티)’ 등의 제주 방언형들이 음라우트를 경험하지 않은 것은, 개재 자음이 t, tʰ였기 때문이 아니라 tʰ, tʰ였기 때문이었다고 간주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점들을 요약하면 제주 방언에서 음라우트의 실현을 막는 개재 자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시적 과정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coronal]의 자질을 갖는 음소들은 음라우트의 실현을 막는 제약으로 작용했다. 둘째, 개재 자음의 음성적 성격이 아니라 음소적 성격에 의해서 발생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음라우트를 경험했다. 셋째, 음소 n의 변이음이 경구개음이었던 시기가 있었다. 넷째, 문헌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퇴>티, 되>디’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음라우트가 일어났다.

(2) a. jaŋjɔm ‘양념’, toŋjɔŋ ‘동냥’

- b. kolhi ‘고리’; kalgi ‘갈기’, pidulgi ‘비둘기’; tuŋdʒɔlbi ‘송편보다 조금 크게 만든 떡’, malmi ‘멀미’; solpʰi- ‘살피다’, solpʰinɔŋ ‘쇠물

9) 제주 방언에서 구개음화가 (\*ɔj) \*wɔj) 변화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동호(1991) 참조.

푸레나무'

- c. tʃuŋsim '점심', tʃaŋsi '상인', suŋsi '홍사'; kaks'i '각시', naks'i '낙시'; kamsilgamsil '감실감실'
- d. səmdzi- '삼키다', nɔramdzi '이영', umdzigi- '움적이다'; məŋdzik- '만지다', tʃaŋdzi '부엌', kaŋdzik<sup>h</sup> '간직하다', tʃoŋdzi '종지', ʌptʰi '엿치'
- e. tʃaktʃi- '적시다', t'aktʃi '딱지', k'oktʃi '꼭지', tukʃi '독지'; tʃoptʃi- '끼이다', sʌptʃigumhɔ '섬쩍지근하다', taptʃi- '속이 답답하다'
- f. tʃɔmtʃi- '잠기다', kamtʃi- '감치다', p<sup>h</sup>ɔlk'umtʃi '팔꿈치'
- (3) a. kɔlli- '가리다', k'usulli- '구슬리다', malli- '말리다', alli- '아리다', nolli- '놀리다', taulli- '쫓다', multʃi '무수기'
- b. kaltʃi '갈치'
- c. tuundzik<sup>h</sup> '든직하다', kandzi '건더기', mondzi '먼지'
- d. pontʃi '홍터', tʃantʃi '잔치'
- c. nansi '냉이'

(2), (3)은 음소 층위에서 개재 자음이 자음군인 예들인데, (2)는 그 중의 하나만 [+coronal] 자질을 가지는 경우로 각각 n, l, s, tʃ, tʃ', tʃ<sup>h</sup>를 포함하는 자음군인 예들이고, (3)은 둘 다 [+coronal] 자질을 갖는 자음인 경우로 각각 ll, ltʃ, ntʃ ntʃ', ns인 예들이다. 이 예들을 보면 후설모음과 i, j 사이에 [+coronal]의 자음이 하나라도 있으면 움라우트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10)</sup> 이것은 앞의 (1)에서 살펴 본 결과를 더욱더 지지해 준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coronal] 자질을 가지는 개재 자음이 움라우트를 그만큼 강력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4) a. tʃak'o:dʒi '적꼬치', jakt'o:ri '노끈 따위로 그물같이 맺어 돌려에 고를 내고 긴 끈을 단 물건', tidi- '디디다, cf. 드디샤(월곡 19.)'<sup>11)</sup>
- b. minjʌŋ '무명'

(4)는 이 글의 조사 자료 중에서 개재 자음이 [+coronal]인 경우에도 후설 모음이 변이를 보이는 예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그런데, (4)b의 minjʌŋ은 문헌형 '무명' 및 현대 중부 방언형과 비교해 볼 때 움라우트가 일어난 후에, 제2음절에서 일종의 이화인 \*m>n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4)a는 여전히 예외로 남는다.<sup>12)</sup>

10) 형태음소의 수준에서 존재한다 하더라도 음운적 실현에서 이러한 자음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움라우트가 가능한 것(金完鐵 1971)은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11) 이 글에서의 문헌형은 한글학회(1992)에 따른 것이다.

12) 참고로, 이 글의 조사 자료 중에서 [+coronal]인 개재 자음들을 본질음 별로 그 숫자를 밝히면 다음과 같은데, 이 479개 중에서 형태소 경계의 개재 여부에 관계

### 3. 올라우트의 양상

#### 3.1 진행 과정

국어의 올라우트는 방언에 따라서 j가 삽입되고 나서, j가 삽입된 하향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라는 두 과정을 거쳤으며(崔明玉 1980:183, 韓榮均 1980, 崔鎔承 1986:165-166), 아산 지역어에서는 하향성 이중모음이 음성적으로 실현되고 있다(郭忠求 1982)는 것이 밝혀져 있다. 여기에서 살펴 보게 될 제주 방언에서도 올라우트가 하향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는데,<sup>13)</sup> 공식적으로 음소로서의 후설모음은 i, j의 선행 음절의 하향 이중모음과 기타 환경의 후설모음의 변이음을 가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후기 중세 문헌어에서 하향 이중모음으로 표기된 ‘비(腹, 船, 梨)’는 pe, ‘때(時)’는 t'ε, ‘터(垢)’는 t'e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sup>14)</sup>

3.2에서 살펴게 될 바와 마찬가지로, 제주 방언에서는 올라우트 발생 당시 동화주가 i인 예들에서 전형적으로 올라우트가 일어났다. 따라서, 여기에서 살펴 보는 예들은 그러한 동화주를 가지고 있었고, 개재자음이 [-coronal]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올라우트를 경험한 것들에 한정하기로 한다.

- (5) a. imapsajgi ‘이마빼기, cf. 이망새기, 이명새기(玄平孝 1962:527)',  
tʃagnajmi ‘정나미, cf. 정내미, 정나미(玄平孝 1962:541)',  
k'ak'orajji ‘꼴찌, cf. 각플랭이(玄平孝 1962:373)', sajk'i ‘새끼,  
cf. 샷기(월곡 24.)', mullajgi ‘아주 어린 아기, cf. 아기(석보  
9:25)', tʃukp'ajmi ‘뜰에서 죽은 말이나 소, cf. 죽마비(玄平孝  
1962:548)', harajbi ‘할아버지, cf. 하나비(용가 10:52. 125.), 한아버  
(두해-초 8:54), 하라비(왜어, 하:33)', tajngi ‘댕기, cf. 땡기, 당기

없이 (4)a의 3개만 후설 모음의 변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tʃ: 63, tʃ': 2, tʃ<sup>h</sup>: 33, l: 146, n: 34, s: 33, s': 1, t: 7, t<sup>h</sup>: 2, ktʃ': 13, ktʃ<sup>h</sup>: 2, ks': 4, kt': 1, ltʃ': 2, ltʃ<sup>h</sup>: 1, lh: 1, lk: 8, ll: 33, lm: 7, ln: 1, lp: 1, lp<sup>h</sup>: 3, ls: 1, ls': 2, mtʃ: 8, mtʃ': 1, mtʃ<sup>h</sup>: 4, ms: 2, mt<sup>h</sup>: 1, ntʃ: 10, ntʃ': 2, ntʃ<sup>h</sup>: 12, ntʃ': 1, ntʃ<sup>h</sup>: 5, gn: 6, ɾs: 6, ɾt<sup>h</sup>: 1, nh: 1, nk: 3, nn: 1, ns: 4, nt: 3, ptʃ': 4, ps': 3, ttʃ<sup>h</sup>: 1, tk': 1

13) 음성학적으로 이 하향이중모음의 음절부음이 [j]인지, [w]인지는 분명하게 칭취되지는 않은 경우도 있지만, 단모음과는 분명하게 구분되고 또한 다른 방언에서 음절부음이 [j]로 실현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따라서 j계 하향이중모음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14) 이 항목은 올라우트를 위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라 e:ε의 대립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올라우트 환경을 제외한 위치에서 하향 이중모음의 출현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정밀한 검토를 요한다. 참고로, 여기에서 제시한 것 이외로는 se '혀', se '새(新, 茅, 鳥)'; pe '근, cf. 바(노변, 하:36)' 등이 있어서 e:ε가 대립되고 있으며, 문헌형의 'ㅣ'는 제주 방언에서 e와 대응된다(玄平孝 1964)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밝혀 둔다.

(玄平孝 1962:408)', ajk'i- '아끼다, cf. 앓기샤(용가 7:26. 54.)', wedʒajgi- '왜자기다, cf. 왜재기다(玄平孝 1962:520)'

b. saltʰhejgi '사립문, cf. 살따깃 門(두해-초 6:44)'; tosejgi '작은 돼지, cf. 도새기(玄平孝 1962:412)', sejgi- '새기다, cf. 사겨서(두해-초 8:3)'

(6) a. kompʰeji '곰팡이, cf. 곰뿔(훈몽-초, 하:6); adʒeji '앙금, cf. 아쟁이, 아쟁이, 아지(玄平孝 1962:504), 안즈니(용가 1:11. 7.)', totʰεbi '도깨비, cf. 뚝가비(석보 9:36)',

b. mulpʰe:gi '살무사, cf. 물페기(玄平孝 1962:474)'; kʰoptʰε:gi '눈썹, cf. 콧제기, 콧재기, 뿔재기, 곱재기(玄平孝 1962:568)',

(5), (6)은 피동화주 a가 하향이중모음화, 전설단모음화 및 장모음화로 음라우트를 경험한 예를 제시한 것인데, (5)a, b는 각각 음라우트의 결과가 aj, ej 및 εj인 예들이고, (6)a, b는 그 결과가 e 및 ε, e: 및 ε:인 예들이다. 전체적으로 105개의 예들 중에서 피동화주가 음라우트를 경험한 것이 aj인 것이 69개, ej인 것이 3개, εj인 것이 7개, e인 것이 8개, ε인 것이 12개, e:인 것이 3개, ε:인 것이 3개이다. 그런데, (5)b와 (6)a, b에서의 e, ε는 제2음절 이하에서의 e, ε의 합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음라우트와는 관련이 없는 구분이다. 따라서, 피동화주가 a일 때 하향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비율은 75.23%, 전설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비율은 19.04%, 전설장모음으로 실현되는 비율은 0.05%이다.<sup>15)</sup>

(7) a. kulgaʒginan '굴거리나무, cf. 굴거리낭, 굴계낭, 굴깨낭(玄平孝 1962:378)', k'ak'ajji '자루가 부러진 숟가락, cf. 거쟁이, 꺼쟁이(玄平孝 1962:545)', sajmijak '진드기의 애벌레, cf. 서미역(玄平孝 1962:479)', tajji '덩이, cf. 덩이, 멩이(玄平孝 1962:410)'

b. kamburejgi '검부러기, cf. 검부레기(玄平孝 1962:366)', hadʒejbi '허수아비, cf. 허제비(玄平孝 1962:586)'

(8) a. pugegi '입구가 좁은 떡둥구미, cf. 부계, 부계기(玄平孝 1962:461)', nuŋgmreji '능구렁이, cf. 능그렁이, 능그리(玄平孝 1962:400), 구렁이(구간 6:54), 능굴이(물명 2:6)', pʰegi '포기, cf. 퍼기(두해-초 15:6)', (san)t'eji '더미, cf. 데미, 더미(玄平孝 1962:409)', negi- '여기다, cf. 너기수 ㅅ쇼셔(월곡 2.), 너기시저늘(삼강, 열:7)'

b. muse:ji '매끼, cf. 무생이, 무새(玄平孝 1962:428)', tutʰe:bi '두꺼비, cf. 두텁이(왜어, 하:27), 두터비(구방, 하:67)', t'ɔm-t'udture:gi '땀띠, cf. 두드러기(훈몽-초, 중:16)'

15) 전설 단모음과 전설 장모음을 구별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따로 분류한다.



(7), (8)은 피동화주  $\Delta$ 가 하향 이중모음과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예들인데, (7)a, b는 각각  $\Delta_j$ ,  $\Delta_j$ 로, (8)a, b는 각각 e, e:로 실현되는 것들이다. 60개의 전체 예들 중에서  $\Delta_j$ 로 실현되는 것이 12개로 20%,  $\Delta_j$ 로 실현되는 것이 13개로 21.66%, e로 실현되는 것이 28개로 46.66%, e:로 실현되는 것이 7개로 11.66%이다.

- (9) a. malmorojgi ‘병어리, cf. 말모로기(玄平孝 1962:426)’, t<sup>h</sup>ojk’i ‘토끼, cf. 툃기(월석 2:19)’, sojgi $\Delta_j$  ‘소경, cf. 소경(내훈-초 3:10)’
- b. t<sup>h</sup>wejgi ‘새끼로 엮어 놓은 외(椶), cf. 토기, 꿩기(玄平孝 1962:574)’
- c. kwejgi ‘못, cf. 공이(구간 1:89)’
- (10) a. nunt<sup>h</sup>ujgi ‘눈통이, cf. 눈통이(玄平孝 1962:399)’, kulmujgi ‘느티나무, cf. 굴무기(玄平孝 1962:399)’, ujgi- ‘우기다, cf. 우긴대(소해 6:67)’
- b. nibiibul ‘누비이불, cf. 누비(두해-초 15:37)’, nibi- ‘누비다, cf. 누비(두해-초 15:37)’
- c. t<sup>h</sup>swigi ‘취, cf. 취(능엄 8:119)’
- (11) tengi- ‘다니다, cf. 든기면(노해-초, 하:40)’
- (12) a. kwijgi ‘계, cf. 계(훈몽-초, 상:10)’
- b. t’ongigi ‘털다리계, cf. 계(훈몽-초, 상:10)’

(9)에서 (12)까지는 각각 피동화주가 o, u, ɔ, w인 예들인데, o는 다시 oj, wej, we로 움라우트를 경험한 경우로, u는 다시 uj, i, wi로 바뀐 경우로, w는 다시 j, i로 바뀐 경우로 나누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피동화주가 o인 경우는 13개인데, oj로 실현되는 것이 7개로 53.84%, wej로 실현되는 것이 1개로 7.6%, we로 실현되는 것이 5개로 38.46%이다. 그리고 피동화주가 u인 경우는 모두 16개인데, uj로 실현되는 것이 11개로 68.75%, i로 실현되는 것이 4개로 25%, wi로 실현되는 것이 1개로 6.25%이다. 한편 피동화주가 ɔ인 예는 3개 모두 e로 실현되어 100%의 실현율을 보이며, 피동화주가 w인 예들은 3개 중에서 wj로 실현되는 것이 2개로 66.66%이고, i로 실현되는 것이 1개로 33.33%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주 방언에서는 움라우트를 경험한 결과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피동화주가 a인 경우는 후설모음+j, 전설모음+j, 전설 장모음, 전설 단모음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전설모음+j는 이중모음의 단순모음화 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눈 韓榮均(1991)의 가설이 실제 방언 자료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sup>16)</sup> 그

16) 韓榮均(1991)에서는 ‘i’를 예로 들어 oj>oj~~~oj~~>oj~~~oj~~~~~oj~~>oj~~~oj~~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하향 이중모음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과정을 거쳐 단순모음화했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

런데, 전설 장모음을 고려한다면, 단순모음이 나타나기 이전에 하향 이중모음의 음절 부음 j이 탈락하면서 음절 주음이 장모음화되는 과정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음절 주음으로서의 후설모음이 전설모음화하고 음절 부음이 탈락하면서 전설모음이 장모음화한 시기를 거친 다음, 이 장모음이 단모음화하면서 단순모음화가 끝났다는 것이다.

### 3.2 실현 정도

움라우트와 관련된 형태론적 제약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요약된 崔明玉(1989:34)의 표를 보면, 파생에 의하지 않은 순수 형태소 내부에서는 움라우트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순수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를 구분하여 움라우트의 실현 양상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순수 형태소 내부에서는 253개의 예 중에서 204개가 움라우트를 경험한 형태로 나타나 80.63%의 실현율을 보이고, 형태소 경계에서는 157개 중 81개로 51.59%의 실현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움라우트가 형태소 내부에서 먼저 일어났고 이 환경에서 끝날 것을 지향하는 통시적 과정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3.2.1 동화주

국어에서 움라우트는 개재 자음 뒤에 i, j가 올 때 일어났지만,<sup>17)</sup> 현대 방언형 i가 움라우트가 일어났을 당시 i, j가 아니었던 경우는 움라우트에서 제외되었다(崔明玉 1989)고 간주되고 있다. 제주 방언에서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헌형의 'i'와 제주 방언형의 i가 대응되는 형태소들은 움라우트 발생 당시 동화주가 i였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제주 방언형에 대응되는 문헌형을 찾기 어려울 때에는 그 판단이 쉽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움라우트 일어날 당시에도 동화주 위치에 있는 모음이 i였다고 간주할 수 있다.

- (13) a. huks'owajni '조방가새, cf. 흑소왕이, 흑소왕이(玄平孝 1962:544)', hatk'epni '재채기, cf. 헛경이, 헛강이(玄平孝 1962:538)', kopdzujni 'कु꾸라미, cf. 공중이(玄平孝 1962:380)', t'wejgi '새끼로 엮어 놓은 의(獵), cf. 토기(玄平孝 1962:574)', totk'wepni '회오리바람, cf. 돛공이(玄平孝 1962:591)'  
 b. sant'epni '더미', ipt'udujni '주둥이'  
 c. k'otp'ejgi '코뚱배기, cf. 콧베기(玄平孝 1962:568)', pordejgi '숙아나온 부분, cf. 봉데기(玄平孝 1962:460)'

어, 피동화주 o가 oj, we, wej로 나타나는 경우나, 피동화주 u가 i, uj, wi로 나타나는 경우는 제주 방언에서 o, u에 대응되는 전설 원순모음이 존재했다는 적극적인 증거가 아직 제시된 바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17) 움라우트의 동화주가 i, j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논거는 崔明玉(1989) 참조.

- d. *noroséjŋi* ‘노릇, cf. 노릇, 노로쟁이, 노로쟁이(玄平孝 1962:396), 노릇(석보 13:12)’, *paks’ajgi* ‘바가지’
- e. *nambi* ‘냄비, cf. 남비, 냄비(玄平孝 1962:392)’, *paŋmaŋi* ‘방망이, cf. 방망이, 방망이(玄平孝 1962:451)’, *wansuŋi* ‘원승이, cf. 원생이(玄平孝 1962:524)’, *tʃok’i-* ‘못견딤을 당하다, cf. 췌꺼다, 조꺼다(玄平孝 1962:549)’

(13)a, b는 각각 玄平孝(1962) 및 현대 정서법의 후설모음이 제주 방언에서 후설모음이 움라우트를 경험한 음과 대응되는 경우인데,<sup>18)</sup> 이것은 玄平孝(1962) 및 현대 정서법이 움라우트를 경험하지 않은 형식이 수록되거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3)c는 玄平孝(1962) 또는 현대 정서법의 전설모음이 제주 방언의 후설모음이 움라우트를 경험한 음과 대응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玄平孝(1962)의 수록형 또는 현대 정서법형이 움라우트를 경험한 형식이라고 생각된다. (13)d는 제주 방언이나 다른 방언에 그 어기에 해당하는 형태소가 존재하고 ‘움라우트를 경험한 피동화주+개재자음+동화주’가 포함된 접사가 그 뒤에 첨가된 경우이다. 한편, (13)e는 지금까지의 유형과는 달리, 玄平孝(1962) 및 현대 정서법에는 움라우트가 일어난 형식을 수록하거나 반영하고 있지만 이 글을 위한 조사에서는 움라우트를 경험하지 않은 예들이다.<sup>19)</sup>

아래의 (14), (15)는 동화주가 움라우트가 일어날 당시에 *i*가 아니었다고 간주되는 예들이다. (14)a, b, c에서는 각각 현대 제주 방언형의 *i*와 문헌형의 ‘*ŋ*’, ‘*l*’, ‘*ŋ*’가 대응되고 있다. 그런데, (14)a에서 ‘*kʌbjʌp-*’은 문헌형에서는 ‘*l*’로 나타나지만 제주 방언형의 제1음절의 모음이 *ʌ*이기 때문에 모음 교체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포함시켰으며, (14)b의 ‘*opi-*’도 역시 문헌형의 ‘*ŋ*’와 제주 방언형의 *i*가 대응되지만 같은 이유에서 ‘*l*’와의 대응에 포함시켰다.<sup>20)</sup> (14)d는 대응되는 문헌형을 찾기 어렵지만, ‘*agizagagizak*’은 玄平孝(1962:499)에 ‘아기작아귀작’으로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주 방언형의 *i*가 후대의 발달형으로 간주하였다.

- (14) a. *jʌgi* ‘여기, cf. 이서괴(석보 19:17), 여괴(금삼 4:28)’, *tʃʌgi* ‘거기, cf. 덩어괴(두해초 11:16), 더긋 법(박번, 상:9)’, *kʌmi* ‘거미, cf. 거뢰(구간6:59)’, *kongɪ* ‘공기, cf. 공괴(역해, 하:23)’, *ʌgi-* ‘어기다, cf. 어괴디(월석 17:52)’, *pubi-* ‘비비다, cf. 부비여(구방, 상:187), *pubi-* ‘문지르다, cf. 부비여(구방, 상:187)’, *sʌŋgi-* ‘성기

18) 玄平孝(1962)에는 움라우트를 경험한 형태와 경험하지 않은 형태들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 역시 제주 방언 전체적으로는 움라우트가 생산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19) *tampi-* ‘덤비다’ 역시 다른 방언권에서 *tempi-*로 실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20) 문헌형에 나타나는 ‘*ʃ*’ *ɸ*’의 변화를 현재로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다, cf. 성기디(석보 19:7)', kAbjAp- '가볍다, cf. 가비얍고도(석보 9:35-36)'

- b. mogi '모기, cf. 모기(석보 9:9)', homi '낫, cf. 호리(두해-초 8:48)', pomi '쌀겨, cf. 보리(두해-초 20:10)', somi '소매, cf. 스 및 그티라(법화 1:31), 소매(두해-초 20:47)', topi '동이, cf. 동리(신합, 상:27)', pomi- '늑이 슬다, cf. 보리니(두해-초 20:10)', tombi '동부, cf. 동비(동해, 하:3)', tɔŋgi- '당기다, cf. 동기다가(능엄 5:24)', tʃabat'ɔŋgi- '잡아당기다, cf. 동기다가(능엄 5:24)', tʃuldɔŋgimnak '줄다리기, cf. 동기다가(능엄 5:24)', obi- '오비다, cf. 우의여(석보-중 11:21), 우뵤다(동해, 하:18), 우빅여(한청 12:57)', nabi '나비, cf. 나빅(능엄 7:83)'
- c. sɔmkʰi '푸성귀, cf. 프성귀(석보 6:28)'
- d. agizagagizak '아기작아기작'

- (15) nujk'inap '느티나무, cf. 누튀나무(훈몽-초, 상:5), 느티나무(역해, 하:42)', tajbi '따비, cf. 따보(훈몽-초, 중:9), 따부(신합, 상:28), 따빅(물보)', mujk'i- '무디다, cf. 무디니(월석 13:38)', p'ijamt'egi, '뺨따귀'

(14), (15)의 유형에 속하는 26개 예 중에서 음라우트를 보이지 않는 (14)의 예가 22개이고, 음라우트를 보이는 (15)의 예가 4개인데, 문헌형의 'ㄱ, ㄴ, ㄱ' 등의 이중모음과 제주 방언형의 i가 대응되는 예들의 음라우트 실현율은 16%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방언과 마찬가지로 제주 방언에서도 음라우트가 일어났을 당시 동화주 위치에 있는 모음이 i가 아니었을 때에는 음라우트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문헌형과 현대 제주 방언형의 선후 관계에 대한 결론은 신중하게 내려야 하겠지만, 이처럼 문헌형에서 이중모음으로 나타나는 형태소가 대단히 낮은 음라우트의 실현 정도를 보인다는 것은 제주 방언에서도 문헌형과 마찬가지로 하향 이중모음이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2.2 형태소 종류

3.2.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음라우트의 발생 당시 동화주 위치에 i가 아닌 모음 또는 이중모음이 있었을 때 원칙적으로 음라우트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하에서 형태소 내부의 음라우트 실현 양상을 고찰하는 것은 음라우트 발생 당시 동화주가 i였다고 간주되는 예들에 한정하기로 한다. 순수 형태소 내부에 음라우트 환경이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예들 226개 중에서 음라우트를 경험한 것은 200개로 음라우트 실현율은 88.49%에 달하기 때문에 형태소 내부에서 음라우트가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음라우트 실현율은 그 환경이 속해 있는 형태소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형태소의 종류별 음라우트의 실현 양상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 (16) a. nolgaigi ‘날개, cf. 놀개(월석 1:14)’, k’okt’ajgi ‘꼭대기, cf. 꼭터(한청 1:39)’, tʃinegi ‘지네, cf. 지네(월석 9:43-44)’, moŋsajgi ‘망아지, cf. 망야지(두해-초 23:36)’, jopt’ejgi ‘옆랭이, cf. 녀(훈민-원, 해례:22), 녀당이(언두, 하:61)’  
 b. wengwajgi ‘원손잡이’, cf. 웅광이(玄平孝 1962:520)’  
 c. nunk<sup>h</sup>optʃɛ:gi ‘눈곱자기’, nuktʃɛgi ‘늑정어’, kansek’urejgi ‘게으름뱅이’, koru nbejgi ‘힘이나 실력이 팽팽한 사람’  
 d. paks’ajgi ‘바가지’  
 (17) a. kiragi ‘세로, cf. 지러기로(玄平孝 1962:482)’, tʃiragi ‘길이, cf. 지러기(玄平孝 1962:386)’  
 b. torogi ‘바퀴’, cf. 도로기(玄平孝 1962:447)’, muŋt<sup>h</sup>ugi ‘몽텅이’, tʃɔmmutʃ<sup>h</sup>ugi ‘잠에서 얼른 깨지 못하는 사람’  
 b. horagi ‘노동요, cf. 흥아기, 흥애기(玄平孝 1962:590)’

위의 예들은 움라우트 환경이 접미사 내부에 있는 경우의 일부인데, (17)은 여기에 접미사 -agi / -agi, 혹은 -api / -api가 통합된 예들로, (17)b를 보면, 이 접사의 제1모음은 어기의 모음에 따라 변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torogi는 ‘tol-’+‘-ogi’로, tʃɔmmutʃ<sup>h</sup>ugi는 ‘tʃɔmmutʃ<sup>h</sup>i-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ugi’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에 준하여 muŋt<sup>h</sup>ugi는 ‘\*muŋt<sup>h</sup>i’+‘-ugi’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sup>21)</sup>

(16)은 접미사 내부에서 움라우트가 일어나는 예들 중 접미사별로 하나씩 제시한 것이고, (17)은 움라우트가 일어나지 않는 예들이다. 이 글의 조사 항목 중에서 접미사 내부에 움라우트 환경이 있는 예들은 모두 123개로 그 중 117개가 움라우트를 경험했고, (17)의 6개 예가 움라우트를 보이지 않아 95.12%의 움라우트 실현율을 보여 다음에서 살펴 볼 명사나 동사 내부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접미사 내부에서 가장 먼저 움라우트가 일어났음이 추정되고, 가장 먼저 끝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 (18) a. sajk’i ‘새끼, cf. 샷기(월곡 24.)’, mullajgi ‘아주 어린 아기, cf. 아기(석보 9:25)’, kadʒe:mi ‘가자미, cf. 가잠이(물명 2:4)’, totʃɛbi ‘도깨비, cf. 돛가비(석보 9:36)’, t<sup>h</sup>ojk’i ‘토끼, cf. 툃기(월석 2:19)’, sojgiʌŋ ‘소경, cf. 쇼경(내훈-초 3:10)’, tʃwep<sup>h</sup>inag ‘조피나무, cf. 초피나무(물명 4:7), 조피(구간 6:48)’, kwegi ‘못, cf. 공이(구간 1:89)’, nibiibul ‘누비이불, cf. 누비(두해-초 15:37)’, p<sup>h</sup>egi ‘포기, cf. 피기(두해-초 15:6)’, tut<sup>h</sup>e:bi ‘두꺼비,

21) -i로 끝나는 체언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연결될 때, 체언말 모음 탈락에 대해서는 李秉根(1976) 참고. (16)a의 자료들을 보면, 李秉根(1976)에 제기되어 있는 것처럼 i의외의 모음, 즉 j까지도 탈락했음을 알 수 있다.

- cf. 두텁이(왜어, 하:27), 두터비(구방, 하:67), p<sup>h</sup>uŋdeŋi ‘풍덩이, cf. 풍덩이(동해, 하:42)’
- b. agigudak ‘아기를 쥐는 바구니, cf. 아기(석보 9:25), agi ‘딸애, cf. 아기(석보 9:25), kugjaŋ ‘구경, cf. 구경(월석 2:35), kundupi ‘궁둥이, cf. 궁둥이(한청 5:56), kollugi ‘쌍둥이, cf. 글오기(훈몽-초, 상:17), makt’upi ‘몽둥이, cf. 몽둥이(한청 4:37), p<sup>h</sup>erapi ‘패랭이, cf. 퍼랑이(탕액-초 3:23), s’wenagi ‘소나기, cf. 쇠나기(두해-초 18:19), sapk’wapi ‘팽이, cf. 광이(박해, 하:5), sapk’wapi ‘불이 넓은 팽이, cf. 광이(박해, 하:5), wansupi ‘원승이, cf. 원생이(玄平孝 1962:524), tjudupi ‘부리, cf. 주둥이(玄平孝 1962:547), 1962:547), tjudupi ‘아가리, cf. 주둥이(玄平孝 1962:547), nampi ‘냄비, cf. 납비, 냄비(玄平孝 1962:392), holapi ‘호랑이, cf. 호랑이, 호레이(玄平孝 1962:588), paŋmaŋi ‘방망이, cf. 방맹이, 방망이(玄平孝 1962:451)’

(18)은 명사 내부에 움라우트 환경이 존재하는 예들로, (18)a는 움라우트를 경험한 예들을 유형별로 하나씩 제시한 것이고, (18)b는 움라우트를 경험하지 않은 예들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유형에 속하는 84개 예 중에서 움라우트를 경험한 예들이 (18)a를 포함한 68개이고, 움라우트를 경험하지 않은 것이 (18)b의 16개로, 80.95%의 실현율을 보이고 있다. 위의 예 중에서, ‘아기’에 해당하는 제주 방언형은 mullajgi에서는 움라우트를 경험했지만, agigudak, agi 등에서는 움라우트를 경험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형태소라고 해도 어휘에 따라 실현 여부가 다른 것은, 움라우트라는 통시적 과정이 동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확산적으로 일어났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패랭이’, ‘팽이’ 등의 제주 방언형 및 문헌형을 보면 현행 정서법이 반드시 움라우트를 경험하지 않은 형태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2.1에서 움라우트 발생 당시 동화주 i라고 간주했던 네 번째 기준, 즉 (13)e와 같은 유형이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19) a. nek’i- ‘던지다, cf. 더더시놀(월곡 64.), ajk’i- ‘아끼다, cf. 앓기샤(용가 7:26. 54.), negi- ‘여기다, cf. 너기수분쇼샤(월곡 2.), 너기시거놀(삼강, 열:7), majgi- ‘매기다, cf. 마키면(월석 13:18), nibi- ‘누비다, cf. 누비(두해-초 15:37), modadengi- ‘모여다니다, cf. 돈기면(노해-초, 하:40), tweni- ‘둥이다, cf. 동여(월석-중 23:73), ujgi- ‘우기다, cf. 우긴대(소해 6:67)’
- b. kək’i- ‘채하여 목이 막히다, cf. 꺾기며(두해-초 15:21), tjugjanoh- ‘포개놓다, cf. 주겨 쌓타(동해, 하:54), tʃok’i- ‘못견뎌를 당하다, cf. 췌끼다, 조끼다(玄平孝 1962:549), tɔmpi- ‘덤비다’

(19)은 동사 어간의 내부에 움라우트 환경이 존재했던 것이 비교적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예들이다. (19)a는 움라우트를 경험한 예들 14개를 피동화주별로 나누어 하나씩 제시한 것이고,<sup>22)</sup> (19)b는 움라우트를 경험하지 않은 예들로, 전체적으로 77.77%의 실현율을 보인다. 앞에서 다른 방언에서는 모음 사이에서 [-high, -back]의 자질을 갖는 [ɪ]로 실현되는 음소 i가 개재되는 경우에 동사에서 움라우트가 일어날 수 있어서 움라우트 규칙이 확대되고 있다(崔明玉 1989)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 방언에서는 동사의 실현율이 명사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parugi ‘뺨히, cf. 버:루기(玄平孝 1962:453)’

형태소 내부에 움라우트 환경이 존재하는 예들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펴본 접미사와 명사와 동사의 세 부류에 속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20)의 한 예가 있어서 여기에 제시해 둔다.<sup>23)</sup>

### 3.2.3 피동화주

국어 움라우트에서 후설모음은 모두 피동화주가 되지만 ‘우, 으’는 움라우트가 약화된다(金完鎭 1963)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는 형태소 내부에서의 피동화주에 따른 움라우트의 실현 정도를 살펴 보고자 한다. 아래의 (21)a~f는 움라우트를 경험한 예들을 a, ʌ, ɔ, o, u, u의 피동화주별로 분류한 것인데, 같은 피동화주 내에서는 형태소의 종류 및 개재자음의 유형에 따라 하나씩 제시한 것이다.<sup>24)</sup>

(21) a. k'okt'aigi ‘꼭대기, cf. 꼭터(한청 1:39)', tʃʌnaji ‘정나미, cf. 정내미, 정나미(玄平孝 1962:541)', tʃip'hɛŋi ‘지팡이, cf. 집팡이(역보 44)', s'wenajgi ‘소나기, cf. 쇠나기(두해-초 18:19)', kɔlgajbi ‘개구리, cf. 굴개비(玄平孝 1962:361)', tʃajŋi ‘쟁기’

a'. k'olleŋi ‘꼬랑이, cf. 쏘리(월석 1:28)’

b. mugegi ‘무거리, cf. 무기(내훈-초, 2하:51), tʃʌnank'urejgi ‘장난꾸러기, cf. 장난꾸레기’(玄平孝 1962:536), k'ʌk'aŋgi ‘자루가 부러진 숟가락, cf. 거쟁이, 겨쟁이(玄平孝 1962:545)', sirajmi ‘시로미, cf. 시러미(玄平孝 1962:495)', sajmijak ‘진드기의 애벌레, cf. 서미역(玄平孝 1962:479)', tut'hɛ:bi ‘두꺼비, cf. 두텁이(왜어,

22) ‘던지다’의 어두 자음과 ‘매기다’의 제2음절초 자음은 제주 방언형과 문헌형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23) 모음 -i가 부사 파생 접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버록’ 또는 \*‘버록하다’라는 어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태소 내부의 유형에 포함시켰다.

24) (13)a', b'는 각각 a, ʌ의 움라우트형인 ɛ, e가 변이를 경험한 예들이다. 한편, (13)d의 ‘제비’는 이미 15세기 문헌형에서 ‘저비>제비’의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제1음절의 모음 e가 움라우트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예들에 대해서는 최전승(1978) 참조.

- 하:27), 두터비(구방, 하:67)', tʃebisə '제비, cf. 저비(훈민-원, 해례:26), 제비(두해-초 6:13)', kuŋgeŋi '굴경이, cf. 굴개(박번, 상:21)', nek'i- '던지다, cf. 더더시놀(월곡 64.)'
- b'. kambureŋgi '검부러기, cf. 검부레기(玄平孝 1962:366)', tʃaŋgulle:bi '장구벌레, cf. 장굴레비(玄平孝 1962:536), 장고아비(역해, 하:36), 장구압이(한청 14:50)', muse:ŋi '매끼, cf. 무생이, 무새(玄平孝 1962:428)'
- c. teŋgi- '다니다, cf. 돈기면(노해-초, 하:40)'
- d. tʃ'ojk'i '조끼, cf. 제끼, 쪼끼(玄平孝 1962:543)', sorojgi '소리개, cf. 쇠로기(두해-초23:14)', tʃwep<sup>h</sup>inaŋ '조피나무, cf. 초피나무(물명 4:7), 조피(구간 6:48)', kalgoŋŋi '갈고랑이, cf. 갈공예(두해-초 14:3)'
- e. kuŋŋi '게, cf. 게(훈몽-초, 상:10)'
- f. kulmuŋgi '느티나무, cf. 굴무기(玄平孝 1962:399)', nibibadzɪ '누비바지, cf. 누비(두해-초 15:37)', koŋdʒuŋŋi '귀뚜라미, '공중이, 공쟁이, 공쟁이(玄平孝 1962:380)'

피동화주가  $w$ 인 (21)e)의 유형에 속하는 예는  $kuŋŋi$  '게, cf. 게(훈몽-초, 상:10)' 및 그 복합어들인데, 이것은 문헌형과 비교할 때, 피동화주가  $\Delta$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예는 제주 방언의  $w$ 가 문헌형의 '어' 모음과 대응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접사 '-음이'가 결합되고 움라우트를 경험한 '\*겐이'의 제1음절 모음이 상승화되면 '깅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kuŋŋi$ 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 $w$ '의 변화를 상정해야 하는 것이다.<sup>25)</sup> 그리고, '\*어 $w$ '의 변화 시기와 움라우트의 시기의 선후 관계가 분명하지 않지만, 문헌형의 '어'와 현대 제주 방언의  $\Delta$ 가 대응되는 예들이 많기 때문에 움라우트가 일어난 어휘에서 '\*어'의 고모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피동화주를  $w$ 로 잡는다.

전체적으로 움라우트의 경험 양상을 살펴 보면, a가 115개 중 105개로 91.30%,  $\Delta$ 가 66개 중 63개로 95.45%, ɔ가 4개 중 3개로 75%, o가 15개 중 13개로 86.66%, u가 26개 중 16개로 61.53%,  $w$ 가 3개 중 3개로 100%의 실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ɔ,  $w$ 는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지만, u는 a,  $\Delta$ , o 등의 다른 후설 모음에 비해서 움라우트가 현저하게 낮게 실현되고 있어, 앞에서 언급했던 金完鏞(1963)에서의 지적이 u에 대해서는 제주 방언에도 해당됨을 알 수 있다.

- (22) a. agigudak '아기를 낚는 바구니, cf. 아기(석보 9:25)', agi '딸애, cf. 아기(석보 9:25)', horaji '호랑이, cf. 호랑이, 호랭이(玄平孝 1962:588)', hopagi '노동요, cf. 흥아기, 흥애기(玄平孝 1962:

25) '깅이'이라는 어형도 玄平孝(1962:367)에 수록되어 있다.



590)', *nambi* '냄비, cf. 남비, 냄비(玄平孝 1962:392)', *paŋmaŋi* '방망이, cf. 방망이, 방망이(玄平孝 1962:451)', *p<sup>h</sup>eraŋi* '패랭이, cf. 퍼랭이(탕액-초 3:23)', *s'wenagi* '소나기, cf. 쇠나기(두해-초 18:19)', *sap<sup>k</sup>wagi* '괘이, cf. 광이(박해, 하:5)', *sap<sup>k</sup>wagi* '붙이 넓은 괘이, cf. 광이(박해, 하:5)'

b. *torigi* '바퀴, cf. 도로기, 도레기(玄平孝 1962:447)', *tʃok'i-* '못건덤을 당하다, cf. 쪼끼다, 조끼다(玄平孝 1962:549)'

c. *kugjaŋ* '구경, cf. 구경(월석 2:35)', *kundugi* '궁둥이, cf. 궁둥이 씨(한침 5:56)', *kollugi* '쌍둥이, cf. 골오기(훈몽-초, 상:17)', *mokt'ugi* '몽둥이, cf. 몽둥이(한침 4:37)', *mugt<sup>h</sup>ugi* '몽텅이, cf. 몽텅이, 몽통이(玄平孝 1962:442)', *wansugi* '원숭이, cf. 원생이(玄平孝 1962:524)', *tʃugi<sup>h</sup>noh-* '포개놓다, cf. 쥬겨 쌀타(동해, 하:54)', *tʃudugi* '부리, cf. 주둥이(玄平孝 1962:547)', *tʃudugi* '아加里, cf. 주둥이(玄平孝 1962:547)', *tʃommut<sup>h</sup>ugi* '잠에서 일른 깨지 못하는 사람, cf. 잠무충이, 잠무챙이(玄平孝 1962:556)'

d. *kɔk'i-* '채하여 목이 막히다, cf. 쟁기며(두해-초 15:21)'

e. *kiragi* '세로, cf. 지러기로(玄平孝 1962:482)', *tʌmbi-* '덤비다', *tʃiragi* '길이, cf. 지러기(玄平孝 1962:386)'

(22)는 순수 형태소 내부에 음라우트 환경이 존재하지만 음라우트를 경험하지 않은 예들을 각각 a, o, u, ɔ, ʌ 등의 피동화주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 이 중에서 (22)c는 피동화주 자체의 성격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예들에 대한 설명은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연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3.2.4 개재 자음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coronal]의 자질을 갖는 개재 자음에 따른 음라우트의 실현 정도를 살펴보는 목적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간주한 제주 방언에서 개재 자음에 따른 음라우트의 실현 정도의 차이가 과연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먼저, 음라우트를 경험한 예들을 개재 자음에 따라서 그 유형별로 제시한다.

(23) a. *tʃukp'ajmi* '뜰에서 죽은 말이나 소, cf. 죽마비(玄平孝 1962:548)',

b. *ebia:dol* '부자(父子), cf. 어비아돌(용가 52.), *hadʒejbi* '허수아비, '허제비(玄平孝 1962:586)', *nibidʒagori* '누비저고리, cf. 누비(두해-초 15:37)', *tʃebi* '제비, cf. 저비(역해, 하:45)<sup>26)</sup>

26) 이 어휘의 제1음절의 모음 e도 앞의 주 19)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이유로 음라우트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 c. *tʃwepʰinɑŋ* ‘조피나무, cf. 초피나무(물명 4:7), 조피(구간 6:48)’,  
 (24) a. *nɔlɡajgi* ‘날개, cf. 날개(월석 1:14), 날애(월석 10:78)’, *najgi* ‘내  
 기, cf. 나기호터(박변, 상:22), *sɛjgi-* ‘새기다, cf. 사겨서(두해-초  
 8:3)’, *mongurejgi* ‘모지랑이, cf. 몽그레기, 모지레기(玄平孝  
 1962:435)’, *malmorojgi* ‘병어리, cf. 말모로기, 모로기(玄平孝  
 1962:426)’, *kwegi* ‘고기, cf. 고기(석보 6:10), *pukpujgi* ‘허파,  
 ‘북부기, 부에(玄平孝 1962:587)’, *nabajgi* ‘넓이, ‘너베기, 너버기,  
 넓이(玄平孝 1962:395)’, *egi-* ‘에끼다, ‘에기다’ cf. 엇겨(중노, 상  
 :4),  
 b. *tʃinɛŋi* ‘지네, ‘지냉이, 주냉이, 지냉이, 지냉이’ cf. 지네(월석  
 9:43), *nandzajni* ‘난장이, ‘난쟁이(玄平孝 1962:391)’, *muse:ŋi*  
 ‘매끼, cf. 무생이, 무세(玄平孝 1962:428)’, *tʃuktʃɛŋi* ‘죽정이, cf.  
 죽정(동해, 하:3)’, *totkʷɛŋi* ‘‘회오리바람, ‘뚝쟁이, 뚝공이(玄  
 평孝 1962:591)’, *tʃwiŋi* ‘쥐, cf. 쥐(능엄 8:119), *iptʃudujni* ‘주둥  
 이, ‘입주둥이, 입주땡이(玄平孝 1962:530)’, *kʰolɛŋi* ‘꼬랑이, cf.  
 꼬리(월석 1:28), *tʰoŋŋi* ‘털다리개, cf. 개(훈몽-초, 상:10)’,  
*nungwureŋi* ‘능구렁이, cf. 능그렁이, 능그리(玄平孝 1962:490), 구  
 령이(구간 6:54), 능굴이(물명 2:6)’, *Almeŋi* ‘어레미, cf. 얼멍이  
 (박해, 중:11), 어러미(가례 7:24),  
 (25) *tajŋgi* ‘맹기’, *toradengi-* ‘나다니다, cf. 든기면(노해-초, 하:40),  
*tʃumɛŋi* ‘주머니, cf. 주머니(능엄 8:106),

(23), (24)는 개재 자음이 하나인 경우로, 각각 양순음과 연구개음인 경우  
 이고, (25)는 개재자음이 자음군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또한 (23)의 a, b,  
 c는 음소적 층위에서 개재 자음이 m, p, p<sup>h</sup>인 예들이며, (24)의 a, b는 개재  
 자음이 음소 k, ŋ인 예들이다. 음라우트 실현 정도를 보면, 개재 자음이 양순  
 음일 경우에는 예외없이 음라우트를 경험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14개  
 인 p, 1개인 p<sup>h</sup>, 5개인 m이 모두 음라우트를 경험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  
 다. 한편, 개재 자음이 연구개음일 경우에는 k가 110개 중 100개로 90.90%,  
 kʰ가 8개 중 6개로 75%, ŋ이 80개 중 68개로 85%의 음라우트 실현 비율을 보  
 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율만을 바탕으로 음라우트는 개재 자음이 연구  
 개음일 때보다 양순음일 때가 더 활발하게 실현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보류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연구개음의 개재 자음인 예가 양  
 순음의 개재 자음인 예보다 훨씬 많고, 또한 개재 자음이 ‘연구개음+연구개  
 음’인 pk인 경우는 6개 모두가 음라우트를 경험한 형태로 나타나고 ‘양순음  
 +양순음’인 mp인 경우는 2개 중에서 하나도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4. 결 론

지금까지 제주 방언이 경험한 형태소 내부에서의 올라우트의 양상을 고찰해 왔다. 언어의 역사에 대한 연구의 이론은 다른 분야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 중의 하나가 비교적 최근의 어휘 확산설(lexical diffusion theory)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은데, 이 글에서의 고찰을 통해서 이 이론이 국어 음운사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교적 초기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주 방언의 올라우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재 자음이 하나라도 [+coronal]의 자질을 갖고 있으면 479개 중 3개만 올라우트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개재 자음은 가장 큰 올라우트의 제약 요소이다.

둘째, 개재 자음이 [-coronal]의 자질을 갖는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의 올라우트 실현 양상은 다음 표와 같다.

동화주	이중모음				단모음			
	4/27 (14.81%)				200/226 (88.49%)			
형태소 종류	접미사	명사		동사		부사		
	117/123 (95.12%)	68/84 (80.95%)		14/18 (77.77%)		1/1 (100%)		
피동화주	a	ɔ	ʌ	o	u	ɯ		
	105/115 (91.30%)	3/4 (75%)	60/63 (95.45%)	13/15 (86.66%)	16/26 (61.53%)	3/3 (100%)		
개재자음	p	p <sup>h</sup>	m	mp	k	k'	ŋ	ŋk
	14/14 (100%)	1/1 (100%)	5/5 (100%)	0/2 (0%)	100/110 (90.90%)	6/8 (75%)	68/80 (85%)	6/6 (100%)

위의 표에서 제주 방언에서는 올라우트 발생 당시 동화주가 이중모음일 때에는 올라우트가 일어나지 않았고, 접미사 내부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피동화주가 u일 때에는 올라우트의 실현 빈도가 비교적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coronal]의 자질을 갖는 개재자음에 대해서는 결론을 보류하였다.

## 참고문헌

- 고동호(1991), <제주방언의 구개음화와 이중모음의 변화>, <언어학> 13, 한국언어학회, pp. 33-49.
- 郭忠求(1982), <牙山地域語의 二重母音 變化와 二重母音化-y系 二重母音과 >w 變化를 中心으로-, <方言> 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語文研究室, pp. 27-55.
- 金光雄(1982), <濟州南部語의 움라우트에 對한 調查研究>, <北泉沈汝澤先生 華甲紀念論叢>, pp. 71-93.
- 金光雄(1985), <濟州地域語의 口蓋音化에 대한 一研究>, <제주대학교 논문집(인문편)> 20, pp. 81-102.
- 金英培(1985), <i母音逆行同화와 그 介在子音-平安方言의 경우>, <韓國文化研究> 2, 경기대, pp. 101-116.
- 金完鎭(1963), <國語 母音體系의 新考察>, <震檀學報> 24, 金完鎭(1971), <國語音韻體系의 研究>, 一潮閣, pp. 2-44에 재수록.
- 金完鎭(1971), <音韻現象과 形態論的 制約>, <學術院 論文集(人文, 社會)> 10, 金完鎭(1971), <國語音韻體系의 研究>, 一潮閣, pp. 116-142에 재수록.
- 박창원(1991), <음운규칙의 변화와 공시성-움라우트현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國語研究會 編, <金完鎭先生 回甲紀念論叢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민음사, pp. 297-322.
- 성낙수(1991), <제주도 방언 지도 시안(I)>, <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pp. 829-869.
- 소강춘(1991), <움라우트 현상에 대한 충남 서천 지역의 공시성과 통시성-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문헌 자료와 현대 방언자료를 중심으로>, <國語學> 21, 國語學會, pp. 133-161.
- 李乘根(1971), <雲峰地域語의 움라우트 現象>, <金亨奎博士 頌壽紀念論叢>, 李基文, 李湖燮, 李乘根(編)(1977), <方言研究>, 國語學論文選 6, 民衆書館, pp. 260-274에 재수록.
- 李乘根(1976), <派生語形成과 i逆行同化規則들>, <震檀學報> 42, 李乘根(1979), <音韻現象에 있어서의 制約>, 塔出版社, pp. 96-120에 재수록.
- 이은경(1988), <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해설>, 大提閣.
- 鄭承喆(1988), <濟州島方言의 母音系와 그에 관련된 音韻現象>, <國語研究> 84, 國語研究會.
- 鄭承喆(1994), <濟州島 方言의 通時音韻論>, 서울대학교 博士學位論文.
- 崔明玉(1980), <慶北 東海岸 方言研究-盈德郡 寧海面을 中心으로>, 嶺南대학교 民族文化研究所.
- 崔明玉(1988), <國語 UMLAUT의 研究史的 檢討-共時性과 通時性的 問題를 中心으로>, <震檀學報> 65, 震檀學會, pp. 63-80.
- 崔明玉(1989), <國語 움라우트의 研究史的 考察>, <周時經學報> 3, 周時經研究所, pp. 7-39.
- 최전승(1978), <국어 i-umlaut 현상의 通時的 고찰>, <國語文學> 19, 전북대학교 국

- 어국문학회, pp. 173-212, 최전승(1995), <한국어方言史研究>, 태학사, pp. 121-163에 재수록.
- 崔銓承(1986), <19세기 후기 全羅方言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翰信文化社.
- 崔銓承(1990), <움라우트>,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語研究會 編,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主題別 國語學 研究史->, 東亞出版社, pp. 95-108.
- 韓榮均(1980), <完州地域語의 움라우트 現象>, <冠嶽語文研究> 5, 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pp. 211-232.
- 韓榮均(1991), <움라우트의 音韻史的 解釋에 대하여-研究史的 檢討를 겸한 問題提起->, <周時經學報> 8, 周時經研究所, pp. 53-70.
- 玄平孝(1962), <濟州島方言研究 第一輯 資料篇>, 精研社.
- 玄平孝(1964), <濟州島 方言 'ㅈ'[ɛ]음에 대하여>, <國文學報> 2, 玄平孝(1985), <濟州島方言研究-論攷篇->, 二友出版社, pp. 326-354에 재수록.
- Hock, H. H. (1986), *Principles of Historical Linguistics*, Berlin: Mouton de Gruyter.

(Abstract)

## The Study of Umlaut in the Cheju dialect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nside of a morpheme —

Dong-ho K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aspects and processes of the umlaut in a morpheme in the Cheju dialect. The results which is discussed in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inserted consonant is the greatest constraints on the umlaut. For, if there is one inserted consonant which is [+coronal], the umlaut has not occurred.

Second, if the inserted consonant has the feature of [-consonantal], the aspects of the umlaut are as the following scheme.

assimilator	diphthong				monophthong			
	4 / 27 (14. 81%)				200 / 226 (88. 49%)			
morpheme	Suffix		Noun		Verb		Adverb	
	117 / 123 (95.12%)		68 / 84 (80.95%)		14 / 18 (77.77%)		1 / 1 (100%)	
assimilatee	a	ɔ	ʌ	o	u	w		
	105 / 115 (91.30%)	3 / 4 (75%)	60 / 63 (95.45%)	13 / 15 (86.66%)	16 / 26 (61.53%)	3 / 3 (100%)		
inserted consonant(s)	p	p <sup>h</sup>	m	mp	k	k'	ŋ	ŋk
	14 / 14 (100%)	1 / 1 (100%)	5 / 5 (100%)	0 / 2 (0%)	100 / 110 (90.90%)	6 / 8 (75%)	68 / 80 (85%)	6 / 6 (100%)

Based on the above scheme, it is argued that the morphemes in which the assimilator was a diphthong in the period of the occurrence of umlaut did not experience the umlaut, and it occurred in suffixes earlier than any other sort of morphemes. And it is shown that the umlaut of *u* has occurred in the low rate in comparison with other vowels.